



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5. 31.(화) 08:0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손정혁 (f15strike@korea.kr)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1일(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과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별첨) 방기선 제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손정혁 (f15strike@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jiho88@korea.kr)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임광규 (02-759-6834)
		담당자	과 장 배상인 (bsinicky@bok.or.kr)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담당자	부전문 황재철 (jchwang@kcif.or.kr)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지금부터 새정부의
첫 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7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당시
금융과 통화, 외환 및 재정을 담당하는 전기관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발족¹⁾한 이후
우리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책임지는
상설협의체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며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시점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안보 문제 등
경제외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거시·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²⁾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국제유가, 원자재 등의 가격불안이 국내로 전이되며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1) '12.7.20일 첫 출범, '12.9.7일 대통령 훈령 제정

2) 최근 IMF는 "dimming outlook"이라는 표현을 사용(Why we must resist geoeconomic fragmentation-and how, 5.22 IMF blog)

대외 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확충이라는 큰 틀 내에서,
거시·금융·외환시장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를 찾는
세심함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모든 참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거시·금융 여건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기에 정확하고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국내외 전반적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자영업자 부문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의 경우
그간 코로나 대응조치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